

‘불방망이’에 완패한 류현진, 자주 만날 보스턴 극복 과제

토론토 이적 후 처음 만난 보스턴에 5이닝 4실점
팀 타율·OPS AL '1위'...올해 19차례 만날 예정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불방망이’ 보스턴 레드삭스에 완패를 당했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열린 2021 메이저리그 보스턴과 경기에서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 8피안타 2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투구 수는 83개.

시즌 평균자책점은 1.89에서 3.00으로 치솟았다. 팀이 2-4로 패하면서 시즌 2패(1승)째도 떠났다.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 경기였다. ‘강타선’ 보스턴의 화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보스턴은 이날 경기 전까지 팀 타율 0.288로 아메리칸리그 1위를 달렸다. 팀 홈런도 21개로 2위에 올라있고, OPS(출루율+장타율)도 0.818로 1위였다.

출발은 순조로웠다. 류현진은 1회

를 삼자범퇴로 막았다. 2회는 선두 타자 잭 데이비스를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내보냈지만, 후속 3타자를 모두 뜬공처리했다. 3회에는 선두 바비 달백에 좌전 안타를 맞은 뒤 3루수 더블플레이와 땅볼로 이닝을 정리했다.

문제는 4회였다. 한 차례 타순이 돌고 난 뒤 다시 만난 보스턴 타자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류현진은 4회 선두타자 크리스티안 아로요에 커터를 던졌다가 중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 J.D. 마르티네스에게도 커터로 좌전 안타를 허용했다.

무사 1, 2루에 몰린 류현진은 상대 4번타자 보가츠를 묶어내지 못했다. 보가츠는 1볼-2스트라이크에서 류현진의 4구째 91.1마일짜리 포심 패스트볼이 높게 들어오자 시원하게 방망이를 들었다. 타구는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 떨어졌다.

일격을 당한 류현진은 이후에도 안

정을 찾지 못했다. 마빈 곤잘레스에게 좌전 2루타를 내주며 몰린 2사 2루에서 달백에게 중견수 방면 3루타를 얻어 맞아 4점째를 헌납했다.

힘겨운 4회를 치르며 투구 수가 크게 늘어난 류현진은 결국 5회까지만 책임진 뒤 마운드를 내려야 했다.

보스턴은 토론토와 함께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해있는 팀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토론토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이 보스턴전에 등판하는 건 LA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 팀당 60경기 단축시즌으로 치러지면서 류현진은 보스턴을 상대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162경기 체제로 다시 돌아가면서 토론토와 보스턴은 19차례 만난다. 이날은 토론토와 보스턴의 시즌 첫 맞대결이었다. 이번 시즌 토론토는 보스턴과 18경기가 남아있단 얘기다.

류현진도 올 시즌 몇 차례 더 보스턴을 상대하게 될 수 있다. 시즌 첫 만남에서 무릎을 꿇은 류현진에게 보스턴 타선 봉쇄가 남은 시즌 속세가 될 전망이다.

뉴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 “제구 몰려…홈런은 타자가 잘 친 것”

“제구 미스…구속도 평소보다 떨어져”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보스턴 레드삭스전 고전 이유로 제구를 꼽았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선발 등판, 5이닝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홈런 하나를 포함해 안타 8개를 맞고 삼진은 2개만 슈어했다.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 나선 류현진은 4회 이후 투구 내용에 대해 “(3회까지만) 다른 느낌은 없었다. 안타를 맞으면서 제구가 흔들리는 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4회부터 투구 패턴을 바꾸며 보스턴 타선을 경계했지만, 결국 제구에 발목이 잡혔다. 류현진은 “타순이 한 바퀴 돈 뒤 패턴을 바꾸는 건 모든 투

수들이 하는 거다. 하지만 패턴을 바꾼 뒤에 제구가 가운데 몰리는 게 많았다. 그래서 4회 집중타를 맞은 것 같다. 제구 미스였다”고 아쉬워했다.

구속도 평소보다 떨어졌다. 이날 최고 구속은 91.4마일(약 147km), 평균 구속은 88.7마일(약 142.7km)이었다.

류현진은 “수치상으로 낮게 나왔다. 지난 경기보다 구속이 떨어진 건 느꼈다”면서도 “그렇다고 바뀌는 건 없다. 내가 던질 수 있는 걸 준비해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오늘은 밸런스가 좀 안 맞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홈런을 맞은 상황에 대해선 “공이 들어간 위치는 나쁘지 않았는데 타자가 잘 쳤다. 낮게 가려고 했는데 조금 높게 들어갔다. 높은 곳에 던지려면 아예 더 높아야 했는데 애매했던 것 같다. 그런 공을 던져 홈런이 나오면,

타자가 잘 쳤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던진 83개 중 가장 아쉬운 공을 꼽아달라는 질문엔 “답은 나와 있지 않나. 홈런 맞은 공”이라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구속이 제일 잘 나온 공이 홈런으로 연결됐다. 류현진은 “안타를 맞았을 땐 제구가 가운데로 몰렸지만, 홈런 맞은 공은 모서리 쪽으로 잘 던져서 홈런이 나왔다. 타자가 잘 쳤다”고 설명했다.

부상 선수가 많은 토론토는 시즌 초반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스턴에 지면서 3연패에 빠졌다.

류현진은 “좋은 때가 있으면 안 좋은 때도 있다. 3연패를 했지만, 일년 동안 경기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선수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면 많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흥국생명 단장 “폐퍼저축은행, 김연경 이적 언급 자제해달라”

여자프로배구 신생구단 폐퍼저축은행이 ‘슈퍼스타’ 김연경(33·흥국생명)을 향해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하자, 흥국생명이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

김연경 흥국생명 단장은 21일 “구단은 김연경에 대한 이적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폐퍼저축은행의 여자부 7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신생팀 창단은 김연경 거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해의에서 뛰던 김연경은 지난 시즌 국내로 복귀, 흥국생명과 1년 계약을 맺었다. 시즌 중에도 해외 다수 구단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고 밝힌 김연경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국에 남는다면 다음 시즌에도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폐퍼저축은행이다. 팀을 이끌 스타가 필요한 신생팀 폐퍼저축은행은 김연경 영입에 관심을 드러냈다. 폐퍼저축은행의 언론 대응 관계자는 “김연경 영입과 관련해 흥국생명에 요청을 해보겠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폐퍼저축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에 흥국생명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김 단장은 “폐퍼저축은행은 언론을 통해 흥국생명 소속 김연경의 영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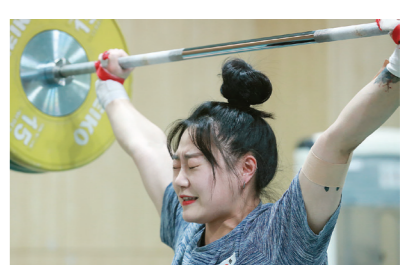


의사를 수차례 밝히고 있다. 당 구단은 김연경 이적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이사회를 통해 현재 구단들이 신생팀 창단을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팀 창단을 축하하며 최대한 지원하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당 소속 선수 영입을 신생구단이 언론을 통해 얘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선수 이적 관련해 사전 모의 행위는 한국배구연맹의 규정과 절차에 위배되는 일이다. 구단과 소속 선수에 대한 이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연경이 폐퍼저축은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흥국생명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 흥국에서 5시즌을 채운 김연경은 1시즌을 더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김연경의 보유권은 흥국생명이 갖고 있다.



한소진, 亞역도선수권 女 64kg급 한국 첫 메달 은메달 1개·동메달 2개

한소진(대전시체육회)이 2020 아시아역도선수권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안겼다.

한소진은 20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치러진 아시아역도선수권 여자 64kg급 경기에서 인상 96kg을 들어 2위에 올랐고, 용상에선 115kg을 성공해 3위를 차지했다.

또 합계는 211kg으로 3위를 기록했다.

같은 체급의 김에라(원주시청)는 인상 5위(92kg), 용상(113kg)과 합계(205kg)는 4위에 머물렀다.

우승은 대만의 천원후(원주시청)가 차지했다. 인상 100kg, 용상 128kg, 합계 228kg을 들어 모두 1위에 올랐다. 2위는 합계 213kg을 든 필리핀의 엘린 엔도다.

남자 73kg급에선 중국의 스즈요이(인상 149kg)를 들어 자신이 2019년 세운 148kg을 넘어 세계신기록을 새로 썼다.

뉴스

KIA 최형우 “하루 안타 하나 치려고 버틸 때 있었는데…2천안타 안믿겨”

개인 통산 2000안타 달성…KBO리그 12번째 대기록



KIA 타이거즈 최형우(38)가 개인 통산 2000안타를 달성해 멀티 홈런쇼로 장식했다.

최형우는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쏘 KBO리그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홈런 2개를 포함해 5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활약했다.

최형우는 1회 2사 2루 첫 타석에서 LG 선발 정찬현의 5구째를 공략,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선제 투런포를 날렸다.

2-1로 앞선 5회 2사 1루에서도 정찬현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또 다시 우월 2점 이적을 그렸다.

이날 경기 전까지 개인 통산 1998안타를 기록 중이던 최형우는 시즌 2, 3호포를 가동하면서 2000안타를 채웠다.

KBO리그 역대 12번째 2000안타 이적 역대 두 번째 최소 경기 2000안타 기록이다. 최형우는 1722경기 만에 대기록을 달성, 1653경기의

이병규 LG 타격 코치의 뒤를 이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었던 최형우가 달성한 기록이라 더욱 값지다.

2002년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포수로 프로에 뛰어들던 최형우는 2005시즌 뒤 방출됐다. 경찰야구단에서 복무하며 외야수로 전향, 야구의 꿈을 이어갔고 2008년 삼성에 재입단했다.

한때 야구를 그만둘 위까지 몰렸지만 이제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꾸준한 타자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3시즌 연속 100안타를 때려내고 있다.

경기 후 만난 최형우는 “내가 2000안타를 칠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예전에는 하루에 안타 하나만이라도 치려고 버티던 사람이었다”며 웃은 뒤 “2000안타를 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대기록을 쓴 소감을 밝혔다.

프로야구 40년 역사에서 2000안타를 수확한 타자는 최형우를 포함해 단 12명뿐이다. 레전드 반열에 들어섰던 의미가 된다.

그러나 최형우는 ‘레전드’라는 말에 손을 내저었다. 그는 “속스럽다.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없다. 야구를 그만두고 돌아볼 때면 몰라도 지금은 그냥 평범한 선수 같다”며 몸을 낮췄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안타로 2002년 데뷔 첫 안타를 뽑은 최형우는 “안타를 얼마나 더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안타에 대한) 목표는 따로 없다. 그저 하루하루 나와서 팀이 이길 수 있게 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것도 욕심을 내는 부분은 있다. “타점은 중심타자로서 계속 기록하고 싶다. 최다 타점기록은 깨보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KBO리그 역대 최다 타점은 은퇴한 ‘국민타자’ 이승엽의 1498점이다. 현역 1위에 올라있는 최형우의 통산 타점은 1346점이다.

최형우가 홈런 2개를 때려내며 초반 분위기를 끌고 온 KIA는 6-3으로 LG를 물리쳤다.

개막 후 13경기에서 팀 홈런 1개만 기록했던 KIA는 모처럼 타선 최형우의 대포에 웃었다.

최형우는 중심타자로서 팀에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내가 너무 못해서 내 자신에게 화가 났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는 그는 “아직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다. 그래도 오늘 팀이 승리하고 장타도 나왔다. 앞으로 타격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미소지었다.

한편, 팻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은 “최형우가 값진 기록을 맺진 홈런으로 장식했다. 더 많은 안타를 칠 것으로 믿는다”며 박수를 보냈다.

뉴스

피겨 차준환 베이징올림픽 준비…미국서 프로그램 구상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차준환은 소속사인 브라보앤뉴는 20일 “차준환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세계적인 안무가인 세린 본(캐나다)과 올림픽 시즌 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을 구상한 뒤 다음 달 귀국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차준환은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차준환은 지난해 초까지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함께 캐나다에서 훈련해 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캐나다 국경이 봉쇄돼 국내로 돌아왔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훈련을 진행해온 차준환은 귀국 후 베이징동계올림픽 선발전 준비할 예정이다.

차준환은 소속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악화해 작년 3월 이후 캐나다로 돌아가지 못해 훈련에 어려움이 많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경기력 유지가 힘들었다”며 “그러나 세계선수권대회를 무사히 치렀고 이제는 베이징올림픽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팬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뉴스